

# ‘국내 최초로 최신 IBM 대형기종 도입’

## -IBM 3032 시스템-

이금석

### 1. 개요

SERI의 HOST 컴퓨터로는 개소 초기의 CDC 3000 시리즈부터 시작하여 1978년경의 CYBER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계속 CDC기계를 증설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1970년 중반부터 SERI의 수탁 연구과제가 대형화되고, 시스템 사용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컴퓨터 용량과 기능에 한계를 느끼게 되어 새로운 기계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1978년도에 당시 전산 기술과를 주축으로 새로운 기종 선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성기수 소장님의 결단에 의해 그 당시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최신의 IBM 대형기종인 3032 시스템이 설치되어 가동되게 되었다.

그 결과 업무용 자료처리 및 온라인 DB/DC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과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최신의 IBM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연구개발은 물론이거니와 대형 수탁과제 수행에 큰 도움을 주었다.

### 2. 도입 과정에서 있었던 일

새로운 기종의 선정 및 도입시에는 항상 제한된 예산의 압박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기종에

대한 불안 등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 당시 IBM 3032 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도 크게 두 가지의 기억할 만한 일이 있었다.

첫째로, 그 당시 책정된 예산으로는 주기억장치 용량을 2MB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으며, DISK 용량도 충분치 못하였다. 기중 선정 작업과정에서 외국의 사용 예와 참고서적을 조사해 본 결과, 3032 시스템에 운영체제로 MV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MB의 주기억 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배정된 예산으로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기중도입이 불가피하였으나, 항상 국내 최고, 최대의 컴퓨터 센터를 추구하시던 성기수 소장님의 지시에 따라 3032 시스템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그 덕분에 부족한 용량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느라 도입 첫해에는 기술과와 운영과에서 곤욕을 치렀으나 다행히 그 다음해에 바로 예산을 확보하여 기억장치와 DISK를 증설하여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습득한 성기수 소장님의 전략을 나도 현재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컴퓨터 선정 및 도입과정에서 그대로 적용한 적이 있다. 즉 '우선 우수한 CPU부터 확보한 다음, 부족한 주변장치는 다음번 예산으로 보완한다'는 작전으로 부족한 예산으로 마음에 드는 좋은 기계를 도입할 수 있는 비결 말이다.

둘째로, 그 당시 국내에서는 새로 선정된 기계의 운영체제인 MVS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없었으므로, 선정된 우리 기계구성에 맞는 운영체제 생성을 위해서 부득이 3032를 찾아 일본으로 출장을 가야 했다. 전산운영과의 윤철중 과장과 IBM의 시스템 엔지니어 1명과 같이 일본 IBM에 갔으나 자기들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한국 IBM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껏 할애해 주는 기계 사용시간이 주로 새벽 1시부터 6시 사이의 서너 시간이었다. 그 전에 MVS를 써본 경험이 없는 세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곤히 자는 새벽에 겪었던 1주일간의 시행착오는 지금은 웃음이 나오지만 그때는 죽을 맛이였다.

그후에도 여러 번 출장을 다녀 보았지만 1주일 동안 낮에는 잠만 자고, 새벽에 일한 경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래도 그 덕분에 MVS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게 되었고, 설치한 후에도 다른 개발팀의 과제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니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다.

### 3. 결 언

IBM 3032 시스템의 설치가동으로 그 당시 CDC기계에 편향되어 있던 SERI 연구원들에게 새로운 기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얻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특히 MVS와 기타 응용 패키지의 사용 경험은 많은 연구원의 다른 업계로의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도입된 IBM 3032 시스템은 그후 약 10년간 사용되다가 80년도 초에 사라졌지만, 그 당시 교락을 같이 했던 전산기술과 사람들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